

이웅모 SBS사장 신/년/사



사랑하는 SBS가족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난 20여 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지혜와 열정을 한 데 모아 우리 SBS가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기업으로 우뚝 서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환골탈태의 자세로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레임에 과감히 깨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큰 도전을 시작합니다.

첫째, 지상파 중심·실시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지상파만이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급증하면서,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경쟁의 시대에 싸움의 승패는 누가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제작 노하우와 파트너십, 그리고 시청자 니즈와 사회 트렌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SBS만의 차별화된 명품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소치동계올림픽, 브라질월드컵 등 3대 스포츠이벤트와 6월 지방선거 방송의 성공을 통해 <빅 이벤트는 역시 SBS>라는 인식을 확고히 합니다. 또한 지상파 중심의 실시간 시청률을 넘어, Life Time Contents Power를 강화하도록 노력합니다.

둘째, 지상파 플랫폼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동안 유료방송을 통한 재송신에 의존한 결과, 무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지상파 플랫폼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간 공조 등을 통해 주도권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차세대 방송용 주파수 확보, UHD 방송 준비 등을 통해 대 시청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합니다. 또 중간광고 도입, 외주제도 개선 등 지상파 플랫폼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룹내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쟁력과 수익성의 조화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상파 독과점시대는 비용보다는 경쟁력을 우선시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형태의 제작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SBS만의 내일 성장 모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 비용 경쟁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이디어와 인재를 키우는 데 전력해야 합니다.

SBS 가족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된 끼와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싶어도 소통과 공유의 장이 부족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정인 저부터 현장과의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업의 간부들도 조직 개편의 취지를 잘 살려 현장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기획안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푸른 말처럼 마음껏 달리고 도전하십시오! 과거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기업이라는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콘텐츠 리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2014년을 만들어 나갑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SBS 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면은 사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간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미담, 기고, 사연을 담은 사진, 사보에 대한 의견 등을 사보 담당자(PR팀 사회정책)에 제보해 주시면 채택된 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SBS 사회공헌활동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발걸음 '나눔 행복 SBS봉사동아리'

2013년 5월 13일(월) 회원 모집을 시작한 '나눔 행복 SBS봉사동아리'는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면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SBS미디어그룹 사우들로 구성된 '나눔 행복 SBS봉사동아리'는 회원들이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자비로 후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단기간에 모범적인 사회 공헌 모인으로 자리 잡았다. '나눔 행복 SBS봉사동아리'는 지난 2013년 8월 23일(금) 갈현동 독거어르신 집수리를 하였고, 9월 25일(수) 경기도 고양시 문촌마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노부부의 집과 11월 16일(토) 홍제동 개미마을 독거노인의 집을 고쳐주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연말에는 SBS그룹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창사기념비 일부를 기부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전개하여 총 107포의 쌀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동아리가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다양한 봉사로 사회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 12월 31일(화) SBS미디어그룹 총무실에서 개최된 '2013년 SBS희망나눔대상'에서 SBS아트비 아트2팀 김지영 사우가 개인 부문을 수상하였다.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한 휴식처가 되고자 노력하는 '나눔 행복 SBS봉사동아리'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에 보다 큰 걸음을 뚫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호회 탐방 | 스키동호회

"설원을 가르는 짜릿함으로 겨울을 만끽합니다"

저희 스키동호회 회원들에게 '겨울'은, 1년 중 가장 행복한 계절입니다. 겨울 한 철, 서너 번의 활동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회원들 간의 친목은 돈독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회원뿐 아니라 방학을 맞은 아이들까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매년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 내외의 회원가족들이 함께 설원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문 스키강사는 아니지만 상급회원이 직접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려 강습을 해주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스키뿐만 아니라 눈썰매도 즐기며 순수했던 동심의 세계를 만끽하기도 하는 저희 스키동호회는,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의 열기도 관심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끝나기 전에,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키여행을 준비해 막바지 겨울을 즐겨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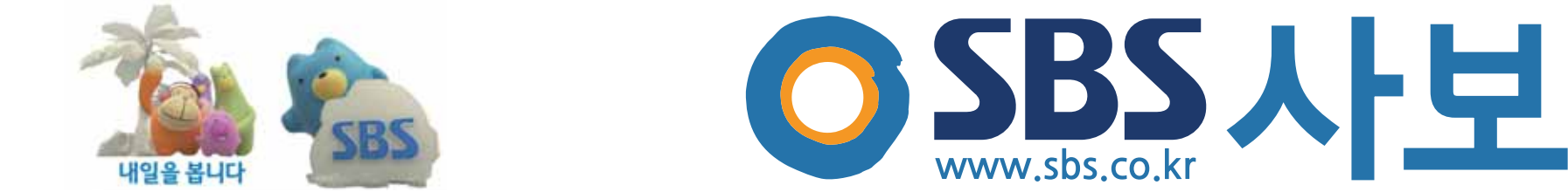


회장 :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안행준 팀장
총무 : 경영지원본부 라디오기술팀 진환석

[NEW BOOK] 보도본부 권중오 차장 '나도 이길 수 있다' 출간

23년간 스포츠 기자로 활동해온 보도본부 스포츠부 권중오 차장이 오랜 취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간 서적 '나도 이길 수 있다'를 출간했다. 스포츠의 역사 속에 깊이 남는 명승부를 통해 승패를 결정짓는 법칙을 전하는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제목 그대로 삶을 승리로 이끄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탐사한 작품이다. 1970년대 세계챔피언이었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부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까지 스포츠 스타들의 에피소드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한 스포츠 명승부들을 소재로 운동 경기는 물론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36가지 승리방정식을 쉽고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엮어냈다. 수많은 패배와 좌절의 상처는 승리의 기쁨으로 대체돼 완전한 힐링이 됨을 알려주는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치유가 필요한 우리들을 위한 처방전이며 스포츠의 세계를 통해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계발을 하는 독자들과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사보 996호 상품 수령인 명단
* 사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예당 화과자
(사우 기고 라디오센터 라디오지원팀 박종필 팀장 라디오센터 라디오2CP 소속 김홍중 차장대우 경영지원본부 뉴미디어개발팀 김성환)



제997호 | 2014년 1월 16일(목) | 발행 SBS 편집 PR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전화 02)2113-3304 팩스 02)2113-3299 @SBSNOW

SBS 프로그램, 2014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신년 맞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시청자 호응 속에 상승세



판타지와 로맨스, 패러디의 풍성한 조화로 화제

<별에서 온 그대>가 2013년 12월 18일(수) 첫 방송부터 400년간 지구에서 살아오면서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외계인 도민준과 환류스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여배우 천송이의 환상적인 로맨스라는 이색적인 소재로 눈길을 끌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별에서 온 그대>는 각자의 캐릭터를 잘 살린 배우들의 연기, 장르를 넘나드는 스토리에 각종 패러디로 깨알 같은 웃음을 선사하며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본 방송에 담지 못한 주인공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끝부분에 에필로그 형식으로 담은 구성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별에서 온 그대>는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며 방송 4회 만에 20.1%(닐스노리아, 전국 기준)로 시청률 20%대를 돌파한 뒤 1월 9일(목) 24.4%까지 치솟으며 순항중이다. <별에서 온 그대>는 전지현과 김수현의 러브라인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르고 각자의 캐릭터를 잘 살린 배우들의 호연,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수목드라마의 왕좌를 굳혔다.



중국에서도 인기, 다운로드 1억 건 돌파

1월 2일(목) 방송에서는 천송이가 동료배우의 의문사에 대한 기해자로 지목되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극적인 전환을 알리며 방송 6회 만에 순간 시청률 30%를 돌파하였고, 중국에서도 화제를 모으며 다운로드 1억 건을 돌파했으며, 중국온라인동영상사이트 PP2TV 조회 수도 756만 건에 달하고 있다. 이미 방송 전에 한국 드라마 사상 최고가로 판매된 <별에서 온 그대>는 한국과 중국의 시청자들을 모두 사로잡으며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